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민생 회복' 협력

간담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기관 노조와 정주여건 개선 소통도 한전KDN 등 지역상품권 활용 "다양한 분야 지속적 연대·협력"

나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연대·협력 강화에 나섰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달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원 간담회 개최 및 한전KDN사거리에서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 상시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윤 시장은 이달 초 향토음식체험문화관에서 흥문표 aT사장을 비롯한 혁신도시 내 7개 이전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 회복 협력사업 추진을 요청하며 올해 문화관에서 새롭게 선보일

먹거리인 목사밥상(어팍진미·소팔진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체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임직원들과 만나 공공기관 소비 의존도가 높은 빛가람동상가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들어 8000만원 규모의 나주사랑상품권을 구입, 지역 취약계층 기부와 사내 포상금 등으로 활용했으며 지속적인 구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 한전



지난달 나주시가 한전KDN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나주시 제공

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10개 기관에서도 관내 복지시설,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지원을 위해 2억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현물을 기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나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발 벗고 나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 발전 협력사항을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 화순군, 2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화순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군민생활안전보험' 갱신 가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은 국내·국의 지구촌 어디든지 해당하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 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사망·상해 후유장애 △급성 감염병 사망위급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26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폭력 범죄 위로금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위로금 등 6종을 개선·신규 가입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개 물림 사고에서도 기존 응급진료비 외에 일반진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

군민생활안전보험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입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화순=김선종 기자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함평군, 26일까지 접수

함평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오는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11일 함평군은 2025년도 함평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교육모집 기한을 기존 12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학교면에 위치한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입교생들에게 숙소, 교육장, 시설하우스, 개별 텃밭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시설을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 농촌 생활 체험 등 귀농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보증금 100만원과 월 15~20만원(숙소 유형별 상이)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입교 후 주소지 이전 여부 및 전월 교육 이수 시간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교육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최근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70세 이하 도시민이며 총 21세대(원룸형 12세대, 단독형 9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함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보고 입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은 "함평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생활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함평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 무료 지원 나주시, 4월 11일까지 신청

나주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 활동 후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산불을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논과 밭, 산림 인접 지역에 소각하는 방식은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됐다. 이에 시는 영농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파쇄지원단은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 및 마을의 신청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과 고령 농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탄저병·역병·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등 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곳과 시설원에 작물의 부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연중 운영된다. 상반기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4월, 하반기는 농번기가 종료되는 11~12월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파쇄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농가는 미리 영농부산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고춧대에 섞인 비닐이나 노끈 등 파쇄를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파쇄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1일까지 받으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의 개인·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뿐 아니라 학업과 진

로, 학교 부적응, 가출, 비행 등 잠재적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가이자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

지난해 청소년동반자는 78명의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사례 지원 102명, 고위험군 청소년 연계 지원 25회, 심리·주거·보호·돌봄·보육·안전·활동·기초 및 생활 지원 서비스 3589회, 찾아가는 집단상담 7회, 사후관리 프로그램 11명 지원 등의 성과를 이뤘다.

손은아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고민

과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활발히 운영하겠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참여는 관내 거주만 9세~24세 청소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381-13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군, '장성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유튜버 감스트 위촉

지역 출신 인플루언서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 홍보대사에 구독자 28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스트(사진)'를 위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성군 출신인 감스트(본명 김민직)는 지난 2013년부터 스포츠 게임, 먹방(음식 먹으며 방송) 등의 콘텐츠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2018년에는 러시아월드컵 MBC 해설위원으로 참여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겼다. 활동명 '감스



트'는 노르웨이 축구선수 모르텐 감스트 페데르센의 이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오는 20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장성 방문의 해' 선포식에 감스트를 초대하고 정식으로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성 출신 유튜버 감스트가 '장성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참여

하게 돼 뜻깊다"며 "2025년이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 방문의 해'는 장성 최초로 개최되는 제64회 전남제전(4월18일~21일), 제33회 전남장애인제전(4월30일~5월2일)에 발맞춰 기획된 관광 프로젝트다.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택시 운영, 스탬프 투어, 버스킹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연중 운영되며 양대제전과 길동무 꽃길축제,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인 4·5·10월은 '장성 방문의 달'로 정하고 '영수증 이벤트' 등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